

민형배 “전력·용수 문제없다”...신장성변전소·동복댐 점검

김성환 장관과 호남 전력·용수 인프라 현장 확인 기후부, 서남권 반도체 물 공급 세부방안 발표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과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일각에서 제기된 기반시설 우려를 일축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30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함께 장성 신장성변전소 건설 현장과 화순 동복댐을 찾아 전력·용수 공급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정부가 최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8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면서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 6.3GW와 하루 65만톤의 공급을

다는 방침이다.

또 광주 제1하수처리장의 하수재이용 수를 역삼투막 처리해 하루 30만 규모의 일반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사용하는 용수 가운데 절반가량은 일반 공업용수인 만큼 하수재이용수 활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장관은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해 대한민국 대도약의 핵심 전력인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전력·용수 공급,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 당선인은 전력 공급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민 당선인은 “그동안 호남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호남에서 생산한 전력이 호남의 첨단산업을 기우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2027년 9월 준공 예정인 신장성변전소가 호남의 풍부한 전력을 반도체 산업단지로 공급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기후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동복댐의 여유 용량 활용과 증과 사업, 광역상수도망을 연계한 다중수원 체계를 구축하면 정부가 제시한 하루 65만톤 공급은 물론 향후 추가 수요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가장 완벽한 인프라 위에 가장 성공적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800조원 반도체 대전환을 전남광주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알림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이은경 K요들협회장
2일 오후 6시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

‘제14기 드림리더아카데미’ 제9강이 2일(목) 오후 6시,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 5층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강의는 이은경 K요들협회장을 초청해 ‘요들처럼 살아가라’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회장은 국내 요들 문화 보급과 대중화에 앞장서며 다양한 공연과 교육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요들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삶을 대하는 자세와 행복한 소통의 의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초청강사 : 이은경 K요들협회장
△주제 : ‘요들처럼 살아가라’
△일시 : 2026년 7월 2일(목) 오후 6시
△장소 :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 대연회장 5층(구, 라마다호텔)
△문의 :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사업국 (062-370-7090)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전남·광주 통합 결단, 반도체 투자 유치 이끌어”

최대 20조 규모 통합 지원금, 기반시설 확보 등 마중물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서남권 반도체·인공지능(AI) 투자 결정적인 배경으로 전남·광주 행정 통합을 직접 거론해 관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하루 앞둔 30일 광주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통해 “강기정 시장님, 김영록 지사님이 전남·광주 통합의 결단을 해주셨다”며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신의 당선 화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하는 결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광주의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 과감하게 통합의 결단을 해주신 것이

주·전남 지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됐다”고 비교했다.

이어 전남 서남해안의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 수자원 조정 가능성, 낮은 용지 가격, 평탄한 지형, 지진 안전성 등을 거론하며 “지금까지 배제됐던 측면이 하나의 새로운 기회로 전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으로 인한 전남광주의 재정 구조와 최대 20조원 규모의 통합 지원금은 반도체 산업 유치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민형배 당선인께서 상당 부분의 기반시설 확보 비용을 통합시가 부담하겠다고 해 정부의 재정 부담도 상당히 줄어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 당선인이) 정부가 지원하게 될 최대 20조원 안에서 5조원쯤에서부터 20조원까지 필요하면 다 쓰겠다고 약속했

다”며 “지방정부만 다 책임지라고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고, 적절한 비용 부담을 하기로 한 현실적인 약속을 실제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대통령 발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의 의미를 산업정책 차원으로 확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전력·용수 등 인프라와 부지 조성, 인허가, 지방 기반시설, 광주 여건 개선을 분담하는 구조가 구체화하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삼성전자 광주 반도체 팹, SK하이닉스 서남권 생산기반, 해남 솔라시도 AI 데이터센터, 영고 광주 첨단패키징 화장이 각각 별도 사업으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되면 통합특별시의 조정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오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800조 반도체 투자 기념식...오후 7시 민주광장서 통합특별시 비전 선포·반도체 전략위원회 발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기념하기 위한 시민대회가 열린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민형배 당선인 인수위)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출범과 대규모 반도체 투자 발표를 기념하는 시민대회를 7월1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통합의 힘! 반도체로 여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주제로 펼쳐지는 기념식은 전남광주특별시의 출범을 전국에 알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를 계기로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다.

행사는 오후 6시50분 식전 공연에 이어 개회선언, 국민의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추진 경과 보고, 축사, 민형배 특별시 출범사 등으로 진행된다.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산업 투자에 대한 의미와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고 이를 완성할 ‘전남광주특별시 반도체전략위원회’도 출범한다.

행사에서는 ‘반도체산업 성공 범시민 본부 준비위원회’도 발족한다. 한국노총·민주노총이 참가해 반도체 공장 조속 구축을 위한 노사 공동 협력 선언문을 낭독한다.

민 시장은 출범사를 통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의 의미와 반도체 투자 환영 메시지, 향후 산업 대전환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 관계자는 “전남광주특별시는 출범과 동시에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행정,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민대회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반도체 투자라는 두 가지 전환의 의미를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행정조직 통합·균형발전·광역교통망 확충 등 과제

▶1면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프로젝트’와 맞물려 호남권을 AI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첨단3지구와 빛그린국가산업단지, 군공항 이전 예정지, 해남 솔라시도 등은 차세대 산업 입지로 거론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800조원 투자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전남과 광주는 40년의 분리를 끝내고 다시 하나의 이름 아래 미래를 선택했다. 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이 될지, 또 지방이 스스로 성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지는 이제 출범 이후의 성과가 답하게 된다.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행정구역을 합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축을 세우는 역사적 선택”이라며 “통합특별시를 AI와 반도체, 에너지 산업이 융합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성공 모델로 만들고, 시민 모두가 통합의 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기대만큼 과제가 적지 않다. 행정조직과 재정 운영의 안정적인 통합은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 광역교통망 확충, 생활권 통합, 주민 체감 서비스 개

선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통합의 성과가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 집중되지 않고 전남 전역과 광주 전체로 확산해야 한다는 점도 출범 이후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통합의 성공 여부는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얼마나 높이는지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특히 광주의 AI 산업 기반과 전남의 전국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이 결합하면 다른 지역이 갖추기 어려운 산업 경쟁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데, 전국 최대 수준의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단지를 보유한 전남은 이러한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국가 시범퓨팅센터와 에너지 신산업, 미래모빌리티 산업까지 연계되면 7월 19일까지 마지막기로 했다.

또 지역위에서 선출하는 전국 대의원 총규모는 1만52명, 이중 선출직 대의원은 7620명으로 정했다.

한편 전준위는 기획·조직·총무홍보·강령정책·당헌당규당무 발전·정년미대 등 6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1면 ‘비전 보고회’서 계속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회 축사를 통해 “서남권이 주도하는 혁신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시켜 전 세계가 필요로 하고 그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혁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약호남 사무국가(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호남에 대한 차별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 직접 관할해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을 1년 조금 넘게 재임하면서 여러 가지 보람 있는 일이 있었지만, 호남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조정하고 기업의 결단을 이끌어 낸 일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며 “전남광주 특별시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8·17 전대’ 대의원·권리당원 70%·국민 30% 반영

권리당원 1인1표제 첫 적용...내달 16~17일 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30일 8·17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을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결과 70%, 국민 여론조사 결과 30%로 결정했다.

송옥주 전준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전당대회는 선거인단 구성과 반영 방식에 변화를 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부위원장은 “전체 반영 비율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쳐 70%, 국민 30%로 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반영해 당원 주권의 원칙을 보

다 분명히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정청태 전 대표가 추진한 ‘권리당원 1인1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선거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약 17대 1 비율로 반영되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이 1대 1로 동등해진다.

전준위는 이날 전당대회 준비 일정도 함께 의결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은 7월 16~17일이며 예비경선은 같은 달 21일에 진행된다.

시도당 순회 경선은 8월 1일 충남·충북

본사인사
△이민규 命 편집국 사회부 구제지역담당 기자 (차장) <2026년 7월 1일자>